agenda

어젠다를 먼저 생각합시다!

Let's start with Agenda!

2009년은 건축계에 상당히 의미 있는 한해이다. 건축기본법이 제정된 이래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구성되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하였고, 그동안 각기 다른 길을 걷던 건축계의 3단체가 통합을 합의한 해이기 때문이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3단체 통합은 건축계가 자신의 운명과 자신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직접 개입하고 같이 고민하며 함께 가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제 건축계는 우리나라의 건조환경을 책임지는 공공적 의무에 대해서 더 이상 다른 이유와 논리로 회피할 수 없으며, 이 의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훨씬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행동해야 하는 때이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작년 12월 발족하였지만 대통령 직속위원회로서 대통령의 여러 정책과 공약사업 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고, 또한 아직 가동 초기인 점으로 감안한다면 지금 당장 건축계를 위한 활동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건축기본법의 정신을 근간으로 탄생되었으며, 건축계의 큰 기대를 안고 시작되었음을 잊지 않는다면 최소한 건축계에 대해서 위원회는 앞으로 어떠한 활동을 할 것인지 또한 건축계는 위원회에 무엇을 기대하고 건축계가 위원회 활동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생각할 수 있도록 활동과 방향에 대해서 밝혀야 한다. 위원회의 활동이 건축계와 함께 가고 있음을 알기 위해서 얼마를 더 기다려야 한다는 말인가? 3단체 통합은 건축계가 스스로 기획하고 결정한 무척 자랑스러운 활동이다. 그러므로 이를 계기로 건축계는 통합의 에너지를 모아서 건축발전의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한다. 통합된 협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인가? 그간 우리사회는 우리나라의 도시와 건축의 저열함에 대해서 건축계를 비난하였고, 우리나라 아파트의 획일성과 문화적 무미건조함에 대해서 관과 민 모두가 건축계를 싸잡아 비하하였다. 그러나 이 모든 현상이 전적으로 건축계의 직능적 무능함과 건축가의 의식의 무력함 때문에 발생된 일인가? 우리나라의 영세자영사업자 비율이 전체 자영업자 중에서 15%에 이르는 산업구조는 선진국의 2~3%에 비교하면 왜 우리나라에 허접한 근생건물들이 이렇게 많은지 알 수 있다. 또한 과거의 위정자들은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국민에게 미래에 입주할 집을 담보로 미리 금융자금을 제공함으로써 온 국민이 잠제적 투기꾼의 길을 열어준 케인즈식의 경제논리가 현재의 아파트의 형식과 문화를 이끈 측면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질 일인가?

우리나라 건축의 문화적 수준을 높이는 일은 건축가의 치열한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며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높은 수준의 건축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를 건축계에 적극적으로 요청하여야만 가능한 일이다. 통합된 협회는 그러한 흐름을 이끌어내는 노력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시도하여야 한다. 우선 발주제도를 포함한 여러 법과 제도들을 개선하며, 현상설계경기의 심사방식을 개선하여 상상력으로 가득찬 수준 높은 건축이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일, 그리고 계약제도 등을 개선하는 것이 그러한 흐름을 만들어 내는 일들이다. 건축계를 하나로 묶는다는 것은 무척 중요한 일이다. 협회들의 통합을 계기로 만명이 넘는 건축사와 수만명의 건축사보와 보조원들, 수천명의 건축대학 교수들과 만명에 가까운 건축전공 학생들 이들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어서 소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면 건축계는 우리 사회에 대해서 과거보다 훨씬 강한 자아와 정체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최근에 건축의 지적재산권을 건축가의 것으로 돌려놓은 몇몇 건축가의 노력이 있었다. 이 얼마나 훌륭한 성과인가? 이와 같이 건축가의 권리와 권익을 찾는 일 역시 통합협회의 일이다.

이 시대의 새로운 기술은 건축의 흐름을 이어가는 가장 중요한 이슈이다. 지속가능성과 녹색성장은 건축계가 당면한 중요한 분야이며, 정보화사회를 반영하는 정보기술 역시 매우 중요한 분야이다. 현재는 유비쿼터스로 대표되고 있지만 전 산업분야로 확산된 IT는 건축 생산의 전 과정과 건축의 철학적 개념적 기반까지도 바꿔놓을 것이다. 건축계는 급박하게 변화하는 현실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새로운 기술과 변화된 기준은 당장 설계원가의 상승으로 이어지며 건축계를 압박하고 있다. 이렇듯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흐름은 누가 준비하고 어디로 이끌어갈 것인가? 통합협회는 기술적으로 적절한 대응이 어렵다면 당장 건축기술연구소라도 열어야 하지 않겠는가? 건축계가 건축에 내재된 자율적 논리에만 집중해서 건축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를 외면한다면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건축적 의식의 감옥에 갇혀있는 것과 같다. 우리의 목표는 물론 이러한 감옥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통합협회는 그 중심에 있으며 건축계에 희망을 갖게 한 장본인이다. 이미 많은 고민과 노력이 수행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은 건축계 전체에게 발표하고 같이 시작하는데 더 큰 의미를 갖는다. 자, 무엇을 먼저 시작할 것인가?

김상길 / Kim, Sang-gil, KIRA
(주)에이텍 종합건축사사무소

약력
- 서울시립대학교 졸업 및 동대학원 박사과정 이수
- 홍익대학교 대학원 졸업
- 희망제작소 부설 도시공간연구소 소장
- 새건축사협의회 정책위원장
- 홍익대학교 겸임교수
- 서울시 및 경기도 건축위원회 위원